

# 근대 중국에서 지리학 학지의 형성\*

한지은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 HK연구교수

■ **논문분야** 중국 근대사상, 지리학사

■ **주 제 어** 중국, 근대, 지리학, 학지

■ **요 약 문**

이 논문은 중국에서 지리학이 근대적 학문의 하나로 정착되는 과정을 추적한다. 근대 중국에서 지리학의 형성은 서양의 분과학 개념의 단순한 '전파' 혹은 '수입'으로만 정의할 수 없는 복잡한 과정이었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풍부한 지리적 전통을 가지고 있었지만, 16세기부터 서구에서 유입된 지리학 지식들은 중국의 지식인들에게 쉽사리 받아들여지지 못했으며 이는 전통의 지리적 관념의 관성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반증하는 것이다. 그러나 19세기 중엽부터 20세기 초에 이르면 중국인들은 스스로 근대적 지리학을 구축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변화는 지리학의 개념 정리가 이루어지고, 대학 강좌와 교과서의 제작 등으로 근대적 지리학 제도가 형성되었으며, 전문적 학회와 잡지 등을 통해 지리학 연구 집단이 형성되었다는 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지리학이 근대적 학지로 제도화되는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근대적 지식으로서 지리학의 정체성의 근원을 규명하고자 한다.

\* 접수일(2011.5.30), 심사 및 수정(2011.6.21), 게재확정일(2011.6.23)

## 1. 서론

중국은 고대부터 축적되어 온 풍부한 지리적 전통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전통적 지리 지식의 역사성과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근대 이전의 이른바 비공식적 ‘선지리학(pre-geography)’들은 필연적으로 근대적 지리학에 관한 개념규정과 논리설정의 문제를 야기한다. 즉 근대적 과학의 성립을 19세기 중반 이후 지리학이 분과학의 하나로 제도화되는 과정으로 이해할 경우 전통시대 지리적 관념과 지식들의 학술적 가치가 무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지리학뿐 아니라 천문학·역사학·정치학·수학 등이 중국에서 근대적 학문으로 형성되는 과정을 서양 학문이 전파된 과정, 즉 ‘서학동점(西學東漸)’으로만 파악하는 일반적 연구들<sup>1)</sup>에 공통적으로 제기되는 비판이기도 하다.

한편 근대적 지리학의 형성을 19세기 중엽 이후 서양의 ‘전파자’와 중국의 ‘수용자’ 간에 이뤄진 일방적 과정으로만 이해하는 관점은 전통적 지리학과 근대적 지리학의 학문적 연계성을 단절하는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 중국에서 지리학이 근대적 과학의 하나로 정착되는 과정은 지리학이 시대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겪은 내적 갈등과 외부 반응이 결합된 복잡한 과정이었음을 고려해야 한다. 중국에서 근대적 지리학 학지(學知)<sup>2)</sup>가 형성되는 과정은 전통적 지리 관념과 서구에서 유입된 지리 지식 중 일부는 수용하고, 일부는 배제하고, 궁극적으로 이를 근대적 지식체계로 통합하는 지난한 과정이었다.<sup>3)</sup>

1) 熊月之, 1984, 『西學東漸與清末思想』,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江曉原·鈕衛星, 2000, 『天文西學東漸集』, 上海: 上海書店出版社; 田淼, 2005, 『中國數學的西化歷程』, 濟南: 山東教育出版社.

2) “배워서 읊”이라는 의미의 학지라는 말은 근대 이전부터 동아시아 각국에서 활용된 말이나, 최근에 근대 이후 분과적 학문연구에 대한 성찰과 관련되어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임성모 외, 2011, 「제국 일본의 문화권력과 학지-연구사적 고찰」, 『한림일본학』 18권, 6쪽.

3) 청나라 말 근대 지리학의 형성과정에 관한 기존 연구들 중 다음이 대표적이다. 郭雙林,

따라서 지리학이 근대적 과학의 하나로 정착되는 과정에 대한 연구는 지리학이 스스로의 연구 영역을 정의하고 다른 학과들과의 관계와 차이를 구별하여 자신의 정당성을 구축하는 과정을 밝히는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을 가진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중국에서 근대적 지리학이 형성되는 과정을 규명하고자 한다. 먼저, 중국의 강력한 지리적 전통과 16세기 이후부터 서구에서 유입되기 시작한 새로운 지리 지식들의 관계를 살펴본다. 이어서,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중국의 전환적 시기에 지리학이 근대적 학지로 제도화되는 과정을 분석하여, 근대적 지식으로서 지리학의 정체성의 근원을 밝히고자 한다.

## 2. 중국의 전통적 지리 지식 체계

### 1) 중국의 지리적 전통

지리학은 다른 어떤 학문보다도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선사시대부터 지도는 인간의 대표적 표현 수단이었으며, 지리적 환경을 관찰·이용·개조하는 다양한 실천 속에서 지리적 관념 혹은 지리적 지식은 이미 발생하였다. 따라서 지리학의 출발 시점을 언저로 보는가에 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서구에서는 그리스 시대에 이미 ‘geography’라는 말이 사용되었고, 이는 문자 그대로 ‘지구에 관한 기술(記述)’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중국에서 고대지리학의 출현 시점은 춘추전국시대로 파악된다. 『周易·繫辭』에 나오는 “천문(天文)을 우러러보고 지리(地理)를 굽어본다”라는 문장에

2000, 『西潮激蕩下的晚清地理學』,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鄒振環, 2000, 『晚清西方地理學在中國: 以1815至1911年西方地理學譯著的傳播與影響爲中心』,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두 저작 모두 청나라 말 중국에서는 근대적 의미의 지리학이 출현하였다고 파악하고 있는데, 이 논문은 이들 선행 연구의 관점에 상당 부분 기초하고 있음을 밝혀 둔다.

서 보듯 당시 이미 '지리'라는 말이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고대 중국에서 지리학은 이처럼 주로 '천문지리(天文地理)'라는 형식으로 표현되었고, 천문학이나 역법과 관련되는 경우가 많았다. 일례로 기원전 1217년 만들어진 갑골문의 기록에서도 바람과 비에 관한 기록이 발견되었고,<sup>4)</sup> 계절과 절기(氣)의 구분이나 '천원지방설'로 대표되는 지구 형태와 관련한 관념들은 중국 전통지리학과 천문학의 관련성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

한편 춘추전국시대는 『山經』과 『尙書·禹貢』 등 중국 최초의 지리서가 등장한 시기이기도 하다. 제목에 '地理'라는 말이 사용된 최초의 책은 『漢書·地理志』로, 이때 '지리'라는 말은 '지리지(地理志)<sup>5)</sup>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한서·지리지』는 이후 중국 지리지 서술양식의 모델이 되었고, 이때부터 정사(正史) 속에는 통치구역의 연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리지'가 전편에 포함되기 시작한다. 이처럼 중국에서는 전 세계 유례가 없는 방대한 양의 지리지가 저술되었지만,<sup>6)</sup> 지리지의 주된 내용은 관직이나 인물 등 과거의 역사적 상황을 주로 기술하는 것으로 엄격히 말하면 지리학보다는 역사학에 가까운 것이었다.

한편 중국 고대지리학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지도의 중시를 들 수 있다. 『尙書』와 『周禮』, 『管子』 등에는 고대부터 지도의 제작이 중시된 기록이 발

4) 董作賓, 1943, 「殷文丁時卜辭—瞬間之氣象記錄」, 『氣象學報』第17卷 第1,2,3,4合期; 中國科學院自然科學史研究所 地學史組 主編, 1984, 『中國古代地理學史』, 北京: 科學出版社 5쪽 재인용.

5) 지리지(地理志)는 보통 지지(地志) 또는 지지(地誌)라고도 부른다. 넓은 의미의 지리지는 지리서(地理書), 즉 지리에 관한 서적 전체를 의미하는데, 여행 안내기나 산천기(山川記), 잡기(雜記)에서부터 이론적이고 전문적인 지리서까지 광범위한 분야를 포괄하는 뜻으로 쓰였다. 한편 좁은 의미의 지리지는 특정 지역에 대한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기록을 지칭한다. 다시 말하면 일정한 지역 내에 분포하는 시간적·공간적·자연적·인문적인 제 현상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기록으로서 근대 지리학 이전의 지리학의 중요한 부분을 지칭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지리지는 전자의 의미에 해당한다. 양보경, 1987, 『조선시대 읍지의 성격과 지리적 인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6) 조셉 니담(1985), 『중국의 과학과 문명: 수학, 하늘과 땅의 과학, 물리학』, 이면우 옮김, 까치, 288쪽.

견되며, 중국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지도인 후난(南)성 장사(長沙)시 마왕퇴한묘(馬王堆漢墓)에서 발굴된 지도는 축척과 하계망 등이 현재의 지형도와 일치할 정도로 정밀도가 매우 높았다. 이처럼 수준 높은 고대 중국의 지도 제작은 서진 시대에 배수(裴秀)에 의해 확립된 '제도육체(制圖六體)'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배수의 지도제작 이론은 청나라 말 서양의 근대적 지도제작법이 도입되기 이전까지 중국의 전통적 지도제작 이론의 토대로 이용되었다.<sup>7)</sup>

## 2) 예수회의 지리번역서와 전파의 한계

중국의 전통 지리학을 이해할 때, 명나라 말부터 중국이 세계 열강들에 의해 자신들의 세계관을 강압적으로 무너뜨리기 이전까지의 시기는 흥미로운 문제를 제기한다. 중국에서는 16세기 말부터 예수회 선교사들이 번역한 세계지도와 지리서를 중심으로 당시 서구의 지리 지식들이 유입되기 시작했고, 청대에는 유학(儒學) 내부에서 형성된 실용적 학풍의 중시로 인해 전통적 지리학의 연구방법에 변화가 나타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 선교사들이 전해 준 새로운 지리지식과 세계인식이나 관념적인 것에서 실용적인 경향으로 변화된 학문의 경향들이 당대 유교적 지식인들에게 미친 영향력은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 이는 근대적 지리학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전통적 관념의 관성이 얼마나 강력하게 작동하였는지를 보여 주는 것이다.

서양에서도 16세기 말부터 18세기까지의 시기는 분명 지리학의 급속한 발

7) 배수는 『禹貢地域圖』 18편에서 분율(分率), 준망(準望), 도리(道里), 고하(高下), 방사(方邪), 우직(迂直) 등 지도제작의 6원칙을 제시하였는데 청말 학자들이 이를 '제도육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이 원칙은 배수가 처음 창안한 것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것을 정리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분율'은 축척을, '준망'은 방위 혹은 좌표를 가리키며, '도리'는 거리에 가까운 개념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구체적 내용이나 당시 지도제작에 어떻게 이용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辛德勇, 2007, 「準望釋義—兼談裴秀制圖諸體之間的關係以及所謂沈括制圖六體問題」, 『九洲』第4輯, 243; 이명희, 2009, 「중국의 영향과 우리나라의 고지도」, 『한국 지도학 발달사』, 국토지리정보원, 291쪽.

전이 이뤄진 시기이다. 당시에는 탐험과 항해와 관련한 지리적 지식이 축적되는 한편 뮌스터(Sebastian Münster)의 『우주지』(Cosmographia, 1544), 바레니우스(Bernardus Varenius)의 『일반지리학』(Geographie generali, 1649) 등의 걸출한 지리지작이 등장하였다. 특히 17세기부터 유럽인들은 멀리 떨어진 이국적인 땅에 대해 엄청난 관심을 가졌을 뿐 아니라, 합자무역회사들도 자신들의 항해를 돕기 위해 지리학적 정보를 요구하게 되는데, 이때 예수회의 선교사들은 유럽의 지리학적 지식들이 아시아로 확장되는 데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sup>8)</sup>

이 시기 중국에 온 예수회 선교사 중에 지리학 방면에 영향을 미친 대표적 인물로는 마테오리치(Matteo Ricci, 중국명 利瑪竇), 알레니(Giulio Aleni, 중국명 艾儒略), 롱고바르디(Nicolaus Longobardi, 중국명 龍華民), 페르비스트(Ferdinand Verbiest, 중국명 南懷仁), 베누아(Michael Benoist, 蔣友仁) 등이 있다. 이 중 마테오리치가 만든 세계지도, 일명 『坤輿萬國全圖』는 1584년부터 명나라 말까지 판본만 12종이 만들어질 정도로 영향력이 컸으며,<sup>9)</sup> 알레니의 『職方外紀』는 당시 세계에 관한 최신의 지식을 담은 지리서였고, 롱고바르디와 디아즈(Emmanuel Diaz, 중국명 陽瑪諾)가 1623년 제작한 지구의(地球儀)는 중국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지구본이었다.

이처럼 예수회 선교사들을 통해 만들어진 지도와 지리서 등의 번역서, 지구의 등은 모두 중국인들은 이전에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지리적 지식을 담고 있었다. 예수회 선교사들의 영향은 지리학을 비롯한 과학 및 교육 분야 가운데 서양의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만들어진 최초의 신어(新語)들이 이들 선교사들의 번역서에서 탄생된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오늘날 한·중·일에서 대부분 사용되고 있는 지리학 용어인 ‘經

線’, ‘緯線’, ‘熱帶’, ‘冷帶’, ‘溫帶’, ‘地球’, ‘北極’, ‘南極’, ‘赤道’ 등은 모두 예수회 선교사들의 저작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것이다.<sup>10)</sup>

예수회 선교사들은 학술용어뿐 아니라 당시 서구의 지리적 지식도 번역하였는데, 그중에서도 ‘지구구체설’과 ‘오대주설’ 등은 전통적 중국인의 지구 및 세계에 관한 지리적 관념에 큰 충격을 주었다. 고대 중국인들의 세계 인식은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중국을 의미하는 『左傳·昭公七年』의 ‘보천지하(普天之下)’나 『詩經·小谷北』의 ‘솔토지빈(率土之濱)’에서 이야기하는 세계는 황허(黃河) 중하류 일부분에 국한되어 있었고, 오랑캐의 땅을 말하는 ‘만이(蠻夷)’ 또한 오늘날 중국 북부 지역과 양쯔강 중하류 일대를 넘어서지 못했다. 진시황의 통일로 천하의 범위가 확대되었다고 해도 거대한 세계와 비교하면 여전히 아주 작은 지역에 불과했다. 마테오리치의 『곤여만국전도』도설(圖說)에는 최초로 지구구체설이 소개되었고, 남북극과 열대, 온대, 한대 등 오대(五帶)뿐 아니라 ‘오대주’<sup>11)</sup>의 명칭이 최초로 등장했다.<sup>12)</sup> 이처럼 예수회 선교사들의 지도와 지리 저작에는 천하에는 중국과 중국에 조공하는 나라들 외에도 수없이 많은 나라와 광활한 세계가 존재함을 보여 주었다.

한편 앞서 보았듯 명나라 말 예수회 선교사들에 의해 서양의 지리학 지식이 전래되기 이전에도 중국에는 유구한 지리적 전통이 존재하였고, 수많은 지리서와 지도가 제작되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지리서는 ‘부용(附庸)’이라 폄하될 정도로 역사학에 종속적인 지위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17세기부터 지리학의 지위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대표적으로 이러한 변화는 중국의 선구적 지리학자로 평가받는 서하객(徐霞客)의 등장에서 확인할

8) 데이비드 E. 먼젤로(2009), 『진기한 나라 중국: 예수회의 적응주의와 중국학의 기원』, 장동진 외 옮김, 나남, 66쪽.

9) 洪業, 1936, 「考利瑪竇의「世界地圖」」, 『禹貢』 第5卷 第3·4期合刊; 鄒振環, 2000, 24쪽 재인용.

10) 페데리코 마시니(2005), 『근대 중국의 언어와 역사』, 이정재 옮김, 소명출판, 28쪽.

11) 마테오리치의 세계지도에 표기된 오주(五洲)는 歐羅巴(유럽), 利未亞(아프리카), 亞細亞(아시아), 南北亞墨利加(남북아메리카), 墨蠟泥加로 이대 목랍니가는 서구인들이 남반구에 있다고 믿었던 가상의 대륙으로, 마젤란의 세계일주항해를 기념하여 마젤라니카라고 부른 데서 유래하며 주로 현재의 남극 및 오세아니아 대륙을 가리켰다.

12) 王庸, 1938, 107~108쪽.

수 있다.<sup>13)</sup> 서하객은 소년 시절부터 여행과 탐험과 관련한 지리서를 탐독하고 22세부터 30여 년간 중국 전역의 산하를 여행하고 답사하였다. 그는 황하와 양쯔강을 찾아 두 지역을 비교한 후 양쯔강의 발원지는 『우공』에 ‘岷山導江’으로 기록된 민산(岷山)이 아니라 진사강(金沙江) 부근임을 『徐霞客游記·溯江記源』에서 밝히기도 했다.<sup>14)</sup>

서하객이 이처럼 ‘실지고찰(實地考察)’, 즉 현지조사에 근거한 연구에 심취하게 된 것은 당시 중국에서 ‘경세치용(經世致用)’의 학풍이 증시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사실 전통지리학은 ‘전경독사(詮經讀史)’를 기본적 내용으로 하고 옛 문헌을 고찰하는 것을 주된 방법으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명말 청초에는 예수회 선교사들에 의한 유럽 학문의 소개, 경제학 연구의 부흥, 청대 초기 다양한 고전 연구와 전문 분야의 연구를 지원하던 후원자 집단의 등장 등으로 인해 고전문헌학, 천문역산학, 역사지리학, 자연지리학 등과 같은 경험적 연구가 유가의 주류 학술 활동으로 자리 잡으며 지리학 연구에 변화가 나타났다.<sup>15)</sup>

실용적 학풍의 영향으로 이전의 지리를 다룬 저작들이 단순히 현상만을 기술할 뿐 그 원인에 대한 논의를 거의 담고 있지 않았던 것과 달리, 명대 서하객이나 청대 초 유헌정(劉獻廷)·고염무(顧炎武) 등의 저작에서는 지리적 현상은 사실을 기록해야 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그 원인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는 인식이 나타난다. 이러한 학문적 토양의 변화 속에 청나라 초부터 중국 지리학에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연구 경향들이 등장하는데 국내의 18 행정(行省)을 기본 범위로 국한되던 지리학의 연구 범위가 서북 변강(邊疆), 중국과 러시아의 국경, 중국 동남해 및 해외지역에 이르기까지 확대된 점은 주목할 만한 변화였다.<sup>16)</sup>

13) Chiao-Min Hsieh(1958), “Hsia-Ke Hsu-pioneer of modern geography in China,”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48(1), 73~82쪽.

14) 中國科學院自然科學史研究所 地學史組 主編, 1984, 32쪽.

15) 존 헨더슨(2004), 『중국의 우주론과 청대의 과학혁명』, 문중앙 옮김, 소명출판.

16) 郭雙林, 2000, 75~78, 81쪽.

그러나 서구에서 유입된 상당한 수준의 지리적 지식과 내부의 지식 환경의 우호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 서양의 지리적 지식은 이지조(李之藻), 방이지(方以智), 손란(孫蘭) 등 매우 소수의 학자 집단 사이에만 국지적으로 전파되었을 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서양의 지리학은 거짓되고 허황된 이야기로 여겨졌다.<sup>17)</sup> 청대 중엽이 될 때까지도 대부분의 중국 지식인들은 중국의 밖에 멀고 넓은 오대주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거의 알지 못했다. 대부분의 세계지리 책들은 여전히 중국을 중심으로 기술하는 전통적인 방식을 유지하였고, 세계지도에는 아메리카 대륙이 그려지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이처럼 이 시기 서양의 지리 지식의 전파는 그 한계가 뚜렷하였지만, 이 시기 서양에서 유입된 지리적 지식들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보다는 19세기 중엽 이후 중국 지식인들에 의해 근대적 지리학의 개념적 기초로 개화할 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 3. 근대적 지리학 학지의 형성

그렇다면 중국에서 근대적 의미의 지리학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오늘날 중국에서 전통적 지리학이 근대적 의미의 지리학으로 전환된 시점을 언제로 정해야 할지에 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존재한다. 특히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의 시기를 전통의 마지막 시기로 넣을 것인지 근대의 첫 단계로 넣을 것인지에 관해서는 학자들마다 상이한 견해를 보인다. 일부 학자들은 “청대 지리학 연구는 단지 옛것의 총결(總結)이었을 뿐, 새로운 실마리를 만들어 내지는 못했다”<sup>18)</sup>거나, “청대 동안 지리학은 여전히 역사학의 부용이

17) 임종태(2004)는 유교지식인들이 이처럼 선교사들의 지리 문헌에 냉담했던 이유는 그들의 지리지작이 자신들이 비합리적이라고 여겨 온 『산해경』 유의 비정통지리학과 흡사하였기 때문으로 파악하였다.

18) 譚其驤 主編, 1998, 『清人文集地理類匯編』 第1冊, 浙江人民出版社, 2쪽.

있으며, 지리는 단지 하나의 도구에 불과했다”고 평가한다.<sup>19)</sup> 반면에 19세기부터 20세기 초를 ‘근대지리학의 맹아’의 시기로 정의하기도 한다.<sup>20)</sup>

서양에서는 지리학이 근대 과학으로 확립된 시기를 1750년대부터 1850년대로 파악한다. 18세기 초반까지도 서양의 지리학은 역사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보조적인 것으로 이해되거나, 정부가 필요로 하는 자료를 제공한다는 기능적 유용성만이 중시되었다. 그러나 1750년대 독일의 학자들을 중심으로 지리학을 독립된 학과로 건설하려는 이른바 ‘순수지리학(reine geographie)’ 운동이 일어났고, 19세기 초 훔볼트(Alexander von Humboldt)와 리터(Carl Ritter)는 지리학을 지식의 독립된 분야로 발전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무엇보다 이들이 정초한 근대적인 ‘신지리학(New Geography)’은 19세기 말 유럽의 각 대학들에 지리학과 개설되면서 학문적으로 제도화되었다.<sup>21)</sup>

월러스틴(1999)에 따르면 19세기 후반에 학과가 제도화된 과정은 주로 다음의 세 가지 방법에 의해 이루어졌다. 첫째는 대학의 학과로 설립된 과목의 명칭(또는 적어도 교수의 직위의 설립), 국내 학자 기구의 성립(이후 국제적 학자기구), 마지막으로 도서관의 서적분류 통계에 학과 명칭의 사용이 그것이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인류학·경제학·역사학·정치학·사회학 등 오늘날의 학과들이 제도화되었다.<sup>22)</sup> 서양의 사례에서도 확인되듯 지리학이 근대적 학문으로 형성되는 과정에서 가장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대학에 지리학과의 개설과 지리학회로 대표되는 학술단체의 형성이었다. 이는 고대부터 지속되어 오던 지리적 관념과 축적되어 온 지리적 지식들은 대학의 ‘지리학’으로 그 범주와 내용이 규정되고, 전문적 학자 집단들에 의해 응용되기 시작하였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19) 張豈之 主編, 1996, 『中國近代史學學術史』, 中國社會科學院出版社, 359~369쪽; 鄒振環, 2000, 309쪽 재인용.

20) 『中國大百科全書·地理學』, 1986,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505쪽.

21) 이희연, 1991, 『지리학사』, 법문사.

22) Immanuel Wallerstein(1999), 『學科·知識·權力』, 劉健芝 等 譯, 三聯書店, 213~226쪽.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9세기 중엽부터 늦어도 20세기 초에 이르면 중국에서 근대적 지리학이 형성되었다고 본다.<sup>23)</sup> 이는 다음의 세 가지 측면을 통해 드러나는데, 첫째는 이 시기 지리학에 대한 개념적 정의가 전통적인 것에서 벗어나 근대적 의미로 변화하였으며, 둘째는 대학 등 근대적 교육기관에서 개설된 지리학 강의와 지리 관련 교과서에서 근대적 지리학 개념이 보편화되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이때부터 서구에서 유입된 각종 지리적 지식들이 소수의 관료가 아닌 전문적 지식인 집단들에게 보급되었으며 이들은 학회와 전문잡지의 창설을 통해 이를 전유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 1) 지리학에 대한 정의

중국의 전통 서목 분류학 상 지리 관련 책들은 경사(經史) 자집(子集)의 사부(史部)에 속해 있어 역사의 일부로 포함된다. 한편 고대 서목을 정리한 『隋書·經籍志』 사부의 ‘지리류(地理類)’ 안에는 『山海經』, 『水經注』, 『佛國記』, 『神異經』 등 총 139부, 1,432권의 서목이 수록되어 있는데, 수록된 책들을 살펴보면 일정 부분 지리적 서술로서의 가치를 지니는 것도 있지만, 과학적 상식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기괴한 이야기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사(正史)에 속한 ‘지리지’의 내용 또한 위치·경계·자연조건·물산·주민 등 지리적 기술을 포함하였지만, 행정구역의 연혁 등 역사적 사실을 주 내용으로 하며 지리적 환경에 대한 기술은 매우 소략하였다. 무엇보다 지

23) 중국 근대 지리학의 학술 형성과정에 관한 대표적 연구인 郭雙林(2000)과 鄒振環(2000)도 모두 근대적 지리학의 형성 시점을 19세기 중엽부터 20세기 초까지로 파악하고 있다. 광쑹림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중국의 지리학이 근대적 지리학으로 변화하였으며 이는 다음의 세 가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보았다. 첫째는 대학 지리과정의 설치와 새로운 지리교과서의 편찬, 둘째는 지리학 전문연구기구의 건립과 전문적 학술잡지의 창간, 셋째는 지리학 학과체계의 초보적 형성과 과학적 연구방법의 광범위한 운용이 그것이다. 한편 추진환은 19세기 중엽에서 20세기 초까지는 지리학의 학술적 독립이 이루어졌고, 전문적 지리학자들이 출현하였으며, 근대적 지리학 연구방법과 학술규범이 확립되었다는 점에서 전통지리학에서 근대적 지리학으로의 변화가 있었다고 파악한다.

리뷰에 포함된 책의 수량은 매우 많지만, 그중에서 지리학은 무엇을 다루는 학문인지에 관한 개념적 정의를 다루고 있는 저작은 거의 찾을 수가 없다. 결국 지리학과 관련된 책들은 때로는 ‘지지문리(地之紋理)’로 때로는 ‘산경(山經)’이나 ‘지지(地志)’로, 혹은 ‘여도(輿圖)’ 등 상황에 따라 다르게 불렸다.<sup>24)</sup>

그러나 19세기 중반 이후 신교 선교사들에 의해 서양 지리학 저서의 번역이 급증하면서 더 이상 전통적인 지리학의 분류 기준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다. 19세기 중반 이후부터 묵해서관(墨海書館), 중국익지회(中國益智會)와 같은 서양 신교 선교기구를 중심으로 서양 지리학 저서의 번역이 활발하게 이뤄지는데, 이전 시기 예수회 선교사들의 지리학 번역이 중국에 미친 영향이 극히 지엽적이었던 것과 달리, 근대 지리학 지식 및 개념의 유입에 있어 이들의 작업은 그 영향력과 범위 모두가 놀랄 만큼 확대된 것이었다. 19세기 초 최초의 중문 미국지리서인 『美理哥省國志略』이나 『東西洋考每月統紀傳』·『遐邇貫珍』·『六合叢談』 등의 최초의 중문 잡지들도 서양 지리학 지식의 확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sup>25)</sup>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1867년 창설된 중국 최대의 서양서 번역출판기구인 강남제조국번역관(江南製造局翻譯館)이었다. 강남제조국의 번역활동은 프라이어(John Fryer, 중국명 傅蘭雅)를 비롯한 서양 선교사들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대표적으로 와일리(Alexander Wylie, 중국명 偉烈亞力), 알렌(Y. John Allen, 중국명 林樂知), 크레이어(Carl T. Kreyer, 중국명 金楷理) 등이 있었다. 양계초의 『西學書目表』에 따르면 강남제조국에서는 번역된 서적은 총 352종에 달하며 그 범위 또한 군사, 항해, 채광(採鑛), 기계제조, 금속제련, 천문지리, 농업, 동식물, 수학, 화학, 물리, 의학, 사회과학, 실용서 등을 망라하였는데 그중에는 상당수 지리학 관련 저작들이 포함되었다.

〈표 1〉 강남제조국 번역관의 지리학 관련 주요 번역서

서명	원저자	역자	필술자
『海道圖說』(1874) ( <i>China Sea Directory</i> , 1867)	King John ed.	J. Fryer, C. T. Kreyer	王德均
『行軍測繪』(1873) ( <i>A Practical Course of Military Surveying</i> , 1869)	A. F. Lendy	J. Fryer	
『繪地法原』(1875) ( <i>Mathematical Geography</i> , 1864)	Hughes	C. T. Kreyer	王德均
『海塘輯要』(1867) ( <i>The Practice of Embanking Lands from the Sea</i> , 1852)	J. Wiggins	C. T. Fryer	趙元益
『測候叢談』(1876) ( <i>Encyclopaedia Britannica</i> , 8th ed. "Meteorology", 1858)		C. T. Kreyer	華衡芳
『防海新論』(1874) ( <i>A Treatise on Coast-Defence</i> , 1868)	V. von Scheliha	J. Fryer	華衡芳
『地學淺釋』(1873) ( <i>Elements of Geology</i> , 1838)	C. Lyell	MacGowen	華衡芳
『測地繪圖』(1879) ( <i>Outline of the Method of Conducting a Trigonometrical Survey</i> , 1862)	E. C. Frome	J. Fryer	徐壽
『御風要術』(1873) ( <i>The Law of Storms</i> )	R. Birt	C. T. Kreyer	華衡芳

페데리코 마시니는 중국어에서 ‘地理學’이라는 말이 최초로 사용된 것은 1879년 황준헌(黃遵憲)의 『日本雜事詩』이며 이는 ‘지리학’이라는 용어가 일본에서 최초로 만들어져 중국으로 도입된 차용어임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분석하였다.<sup>26)</sup> 당시 도쿄대학에 설치된 과목들을 소개하는 본문의 문장은 다음과 같다. “理學에는 化學, 汽學, 重學, 數學, 礦學, 畫學, 天文地理學, 動物學, 植物學, 機器學이 있다.” 마시니는 19세기 후반 서양 번역자들이 일찍이 중국에 존재하던 어휘들로 중국에 전래된 서구의 과학기술분야의 명칭을 만

24) 郭雙林, 2000, 5쪽.

25) 熊月之, 1984, 7~15쪽.

26) 페데리코 마시니(2005), 156, 201쪽.

들 때, '學'이라는 접미사를 사용하여 주로 '化學', '重學', '醫學', '數學' 등 이음절 합성어를 만들었음을 지적한다. 반면 19세기 후반에 학과를 지칭하는 삼음절 합성어의 대부분은 일본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후 중국에 차용된 것이라고 하면서, 황준헌의 『일본잡사시』에 등장하는 '동물학'과 '지리학'을 그 예로 들었다.

황준헌의 일본잡사시에 등장하는 '지리학'이라는 말이 'geography'의 번역어로서 분과 학문으로서 지리학을 가리키는지는 본문이 가리키는 내용이 분명하지 않아 확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1869년과 1873년의 영화사전(英和辭典)을 검토한 결과,<sup>27)</sup> 19세기 중반 이미 'geography'의 번역으로 '지리학(地理學)'이 사용되고 있음을 볼 때 이 시기 일본에서 이미 근대적 지리학 개념이 확립되어 있었음은 추정할 수 있다.<sup>28)</sup>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지리학'이라는 용어와는 달리, '지리'라는 단어는 중국에서 『한서·지리지』에서부터 이미 사용되었던 말이다. 따라서 '지리학'이 아닌 '지리'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전통적 의미가 아닌 근대적 지리학을 가리키게 된 시점을 살펴보면 이보다 훨씬 앞서는 것으로 보인다. 19세기 중엽 중국에 온 신교 선교사들의 각종 지리학 번역서에서는 근대적 지리학 개념에 대한 초보적 소개들이 포함되었다. 대표적으로 런던선교회에서 중국으로 파견된 무어헤드(중국명 慕維廉)의 『地理全志』에서 정의하는 지리학은 근대적 지리학적 개념에 상당히 접근하여 있다.

무릇 지리라는 것은 땅의 이치이다. 땅의 이치를 살피는 사람은 문(文), 질

27) 『英和對譯袖珍辭書』(1869)에서는 'Geography'를 '地理學', '風土記'로, 『英和字彙附音插圖』(1873)에서는 '地理書', '地理學'으로 적고 있다.

28) 일본에서 최초의 지리학과가 설치된 것은 1908년 교토제국대학의 문학부와 1918년 도쿄제국대학의 이학부가 최초였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서양의 지리학이 이미 19세기 초반에 유입되기 시작하여 1872년 메이지정부의 학제를 설립 시에도 지리학은 학교의 중요한 커리큘럼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Takeuchi, K.(1984), "Japan," in R. J. Johnston and Paul Claval eds., *Geography since the Second World War*, Rowman & Littlefield, 235쪽.

(質), 정(政)의 세 가지 등급을 구분한다. 문이라는 것은 지구의 형태와 크기, 회전과 움직임, 그리고 우주 안에서 지구의 위치, 해와 달, 다른 별들과의 비교, 낮과 밤 사계절에 따른 지구의 움직임을 다룬다. 질에는 안과 밖이 있는데, 안이란 곧 지구의 내부의 형질을 말하는 것으로 넓은 반석(盤石)이나 조밀한 모래와 진흙이 모두 층층이 쌓여 있으며, 그 안에는 생물과 초목의 유적이 들어 있으며, 땅이 마르고 바다가 낮아지는 것처럼 언제나 변화가 있다. 바깥은 지표의 형세를 말하는데 땅과 물의 길이, 대륙과 섬, 산과 골짜기, 고원, 광야와 하천·호수, 대양 등과, 천기(天氣)의 유동하는 성질, 건조하고 습윤한 여러 지역, 벼락이 철을 잡아당기는 성질, 사람과 생물·초목의 유형 등을 다룬다. 정이란 대륙, 나라, 부(府), 주(州), 현(縣), 성(城)과 인구, 종교, 정부, 역사, 풍속, 기예, 토산물 등을 이른다(William Muirhead, 1853, 『地理全志』首編, "地理總志").

여기에서 '문'은 오늘날의 자연지리학과 수리지리학을 가리키며, '질'의 안쪽은 지질학을 바깥쪽은 지형학·기후학·식물지리학 등과 관련되며, '정'은 인문지리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책에는 서양에서 18세기 말 이미 지리학과와 독립된 학과였던 지질학이 지리에 포함되어 있다.<sup>29)</sup> 이러한 문제는 무어헤드와 같은 선교사가 전문적 지리학자가 아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중국에서 지리학과 지질학, 나아가 지학(地學) 및 여지(輿地) 개념이 혼란되었던 상황과 관계가 깊다. 당시 '지학'이라는 용어는 주로 오늘날의 지질학을 가리키는 말이었지만,<sup>30)</sup> 양계초의 『서학서목표』와 『독서학서법』에서는 지리학 관련 서적을 모두 '지학' 항목에 포함시켰다.<sup>31)</sup>

29) 1883년 上海美華書院에서 발간한 『지리지전지』수정본에서는 지질학 관련 내용이 전부 삭제되었다.

30) 艾素珍, 1998, 「清代出版的地質學譯著及特点」, 『中國科技史料』第19卷 第1期, 11~25쪽.

31) 양계초는 『독서학서법』에서 지학을 '지문학(地文學)'과 '지질학(地質學)', '지지학(地志

한편 중국에서 고대부터 주로 지리적 환경을 가리키던 ‘여지’라는 말은 근대 초기까지 오늘날의 지질학 및 지리학 개념과 유사하게 사용되었는데, 대표적으로 경사대학당(京師大學堂)의 지리학 과목의 상당수는 ‘여지학(輿地學)’이라고 불렸다.<sup>32)</sup> 그러나 지학 혹은 지리학과 혼용되어 사용되던 여지학은 점차 중국 고대의 지질학 관련 지식을 가리키는 말로 변화하였고, 지학, 지리, 여지의 혼란도 점차 사라지게 되는데, 프라이어의 『江南製造總局翻譯印西書事略』(1910)에서는 ‘지리류’와 ‘지학류’가 분리되어 있다.<sup>33)</sup>

또 다른 개념적 혼란은 지리학과 지지학, 즉 오늘날 인문지리학의 하위분야인 지역지리학(현대 중국어로는 區域地理學이라 불림)과의 관계에 있었다. 중국의 전통지리학에서 ‘지리’는 그 자체로 지리서, 즉 ‘지’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어떤 학자는 지지를 지리학과 지질학의 상위분야로 정의하기도 하였다. 에드킨스(Joseph Edkins)의 경우에도 『西學略述·地志啓蒙』(1886)에서 “지지는 지학과 다르다. 지학은 지구 속의 물질을 주로 연구한다. …지지는 지구 위의 수목, 산곡(山谷) 등 사람의 눈이 볼 수 있는 것을 상세히 분석하는 것이다”라고 지지와 지리학과 동일한 것으로 설명하였다.

양계초의 『독서학서법』에서는 ‘지학’의 하위분류에 ‘지지학’이 있는데 여기에서 지지학은 각국의 형세와 연혁을 연구하는 것으로 전통적 지리지의 개념에 가까우며 오늘날의 지역지리학의 개념과는 거리가 있다. 이처럼 당시에는 전통적인 지리지와 근대적 지역지리학의 개념이 뒤섞여 때로는 ‘지지학’

學)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때 지문학은 오늘날의 자연지리학에, 지지학은 오늘날의 인문지리학에 가깝다. “서양 사람들은 지학을 말할 때 세 가지 큰 것으로 나눈다. 바람과 구름, 우박과 비 등은 지문학이라고 한다. 땅 속의 광물의 유적은 지질학이라고 한다. 오주만국의 형세와 연혁은 지지학이라고 한다. 지문학 책은 『측후총담』 등이다. 지질학 책은 『지학천석』 등이다. 지지학 책은 『지리지전지』 같은 것이다.” 梁啓超, 1897, 『讀西學書法』 夏曉虹 輯, 2005, 『飲冰室合集·集外文』.

32) 關維民, 1998, 「中國高校建立地理學系的第一個方案—京師大學堂文學科大學中外地理學問的課程設置」, 『中國科技史料』 第19卷 第4期.

33) 張靜虛 輯注, 1953, 『中國近代出版史料初編』, 群聯出版社, 24~25쪽.

으로, 때로는 ‘방지학(方志學)’ 등으로 불리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sup>34)</sup>

그러나 지리학 정의에 있어서 나타난 이러한 혼란들은 20세기 초가 되면 대부분 해소되는데, 일본에 유학하였거나,<sup>35)</sup> 학당 등에서 근대적 교육을 받은 중국인들을 중심으로 민간출판기구에 의해 번역되거나 저술된 저작들에서 지리학 개념의 근대적 정의가 일반화되었다. 한 예로 추대균(鄒代鈞)은 『京師大學堂中國地理講義初編』<sup>36)</sup>에서 “지리학은 인류가 거주하는 지구 표면의 일체 현상을 밝히는 학문이다”라고 하였으며, 장려화(臧勵倫)는 『新體中國地理』(1908)에서 “지리학이라는 것은 지구 표면의 자연 현상과 사람이 사는 곳의 각종 현상에 관해 연구하는 과학이다”라고 정의하였다. 나아가 지리학이란 “지구 표면의 각종 방면을 고찰하고 그것과 사람의 밀접한 관계를 설명하는 일종의 과학이다”<sup>37)</sup>라고 지리학이 과학의 분야임을 명확히 하였다.

지리학의 정의뿐 아니라 지리학의 하위분야에 관해서도 서양의 근대 지리학의 구분과 유사해졌다. 당시 중국 학자들의 책에서 지리학은 주로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sup>38)</sup> ‘수리지리(數理地理)’ 또는 ‘산술지리(算術地理)’라고도 불린 ‘천문지리(天文地理)’와 ‘자연지리(自然地理)’, ‘지세학(地勢學)’이라고도 불린 ‘지문지리(地文地理)’, 마지막으로 ‘인류지리(人類地理)’, ‘인생지

34) 許衡平, 2002, 『中國近代方志學』, 上海: 江蘇古籍出版社.

35) 鄒振環(2000)에 따르면 1899년부터 1911년 사이에만 서양지리학 번역서가 157종이나 출판되었다. 이전과 달리 이 시기 번역서의 절반 이상은 일본어 원본을 일본유학생들이 편역한 것이었다.

36) 이 책은 출간연도가 적혀 있지 않지만, 추대균이 1903년에서 1906년까지 경사대학당의 교습(敎習)으로 재직하였고, 1902년에는 경사대학당 편서국 여지총찬(輿地總纂)을 맡았던 점을 고려하면 1900년대 초반에 출판된 것으로 보인다.

37) 王濤, 1901, 「地理學」, 『學報』 第1卷 第1期; 郭雙林, 2000, 118쪽 재인용.

38) 현대 지리학의 보편적 기준인 자연지리학과 인문지리학의 이원론적 구분이 나타난 경우도 있다. “지구 표면은 모두 일반 현상들을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천연(天然)의 현상에 관한 것으로 수목, 산천, 기후, 동식물 등이다. 다른 하나는 인류의 현상에 관한 것으로, 인종, 풍속, 교통 등이다. 이로 인해 지리학은 둘로 나뉜다. 하나는 천연지리학, 즉 지문학(Physical Geography)이고, 다른 하나는 인류지리학, 즉 인문지리학(Anthropological Geography)이다.” 曾彥, 1910, 『地文學教科書』 「總論」; 郭雙林, 2000, 118쪽 재인용.

리(人生地理), 또는 ‘정치지리(政治地理)’라고도 불린 ‘인문지리(人文地理)’가 그것이다.

특히 당시 지리학 구분에서는 오늘날 인문지리학의 하부 분야인 정치지리학이 인문지리학과 동일시되는 현상이 자주 발견된다. 이러한 혼란은 당시 서양의 정치학(政治學)이 유입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개념적 혼란이거나 당시 번역되거나 저술된 인문지리학의 저서의 주요 내용이 세계 각국의 정치적 상황과 정치기구와 조직 등을 설명하는 것이었던 점을 통해 그 원인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은 20세기 초가 되면 다음의 글처럼 지리학의 정의에 있어 완전히 근대적 면모를 획득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지리학이 포괄하는 사물은 매우 넓으며 여러 과와 모두 관계가 있다. 따라서 관계된 여러 과들 중 가장 밀접한 학과는 다음과 같다. 하나는 수리지리학으로 이 과는 지구의 형상과 천체와의 관계 및 지구의 운동으로 인해 사계절과 낮과 밤의 변화, 그리고 지구 표면의 여러 곳의 위치를 측정하는 방법을 설명하며, 천문지리라고 부른다. 둘째는 자연지리학으로 이 과는 해륙의 자연(환경)의 차이, 공기와 기후 및 동식물과 광물의 분포를 설명하는데, 이른바 지문지리라고 하는 것으로 지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셋째는 정치지리학으로 이 과는 각 나라와 부락의 위치와 환경, 주민들의 문명과 야만의 정도, 정체(政體), 풍속, 종교, 종족, 언어의 차이를 설명하며, 인문지리라 부르는 것이다. 이상의 세 과목은 모두 극히 정밀하고 미묘하며 각각이 전문적인 학문으로, 지리학을 확실히 넓게 연구하려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함께 다루어야 한다(鄒代鈞, 『京師大學堂中國地理講義』 第1章, ‘地理學總論’).

## 2) 지리학 학과 제도의 설립

서양에서 지리학이 독립된 학과로서의 지위를 갖추게 된 결정적 배경은 1874년 황제의 칙령으로 독일의 모든 대학에 지리학과가 개설되면서부터이

다. 한편 독일에서는 그보다 앞서 1872년에 학제 개편이 이루어져 초·중·고 각급 학교에 지리가 필수과목이 되는데 그 바탕에는 지리를 통한 국토의 식이 독일 민족주의의 토대가 된다는 사고가 있었다. 이는 근대지리학의 확립과정은 민족주의적 요구에 따라 근대국가의 주요 과목으로 규정된 과정과 함께 이뤄진 것이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sup>39)</sup>

따라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를 중국의 근대 지리학 개념의 형성기로 칭할 수 있는 두 번째 근거는 바로 1898년 베이징의 경사대학당을 시초로 지리학이 대학의 정규과정으로 포함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sup>40)</sup> 물론 중국에서는 이미 19세기 중반부터 선교사들이 중국 각지에 창설한 교회 학교와 신식 학당 등에서 지리학 수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지만 중국인 스스로 창설한 최초의 고등교육기관인 경사대학당(京師大學堂)에 지리학 강좌가 설치된 것은 근대교육에서 지리학이 확고한 지위를 점하게 되었음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중국의 학교에서 지리 수업이 최초로 개설된 곳은 1893년 미국 선교사가 세운 모리슨소학당(馬禮遜小學堂)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후 北洋大學(1895년), 南洋公學(1896년), 求是書院(1897년) 등에서도 지리학 수업이 개설되었다. 그러나 고등 교육 최초의 지리학 수업은 1898년 설립된 베이징대학의 전신인 경사대학당에서 시작되었다. 경사대학당의 교육과정은 학생 모두가 마땅히 학습해야 하는 교양, 즉 보통학(普通學)과 학생 각각이 하나씩 전공하는 전문학(文學)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sup>41)</sup> 보통학에는 경학, 이학, 초급산학, 초급격치학, 초급정치학, 문학, 체조 등과 함께 ‘초급지리학’이 설치되었고, 전

39) 권정화, 2005, 『지리교육의 이해를 위한 지리사상사 강의노트』, 한울, 18~19쪽.

40) 1862년 관립 외국어 교육기관으로 창설된 동문관(同文館)에서도 이미 지리 수업이 개설되어 있었다. 1879년의 규정을 보면 ‘각국지도(各國地圖)’, ‘지리금석(地理金石)’ 등의 수업이 있었다. 郭延禮, 2000, 『近代西學與中國文學』, 百花洲文藝出版社, 9쪽.

41) 장의식, 2007, 「청말 개혁의 축소판: 무술변법 운동기의 경사대학당」, 『대구사학』 제88집, 147쪽.

문학에는 '고등지리학(측회학 포함)'이 개설되었다.<sup>42)</sup> 이것이 중국 대학에서 최초로 개설된 지리학 전문 과정이다.

무술변법의 실패와 의화단운동 등으로 잠시 혼란을 겪은 후 경사대학당은 1902년 청정부가 『欽定學堂章程』, 일명 임인학제(壬寅學制)를 공표하면서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졌는데, 새로운 규정에 따라 대학원, 대학전문분과, 대학 예비과의 세 단계가 구성되었다. 근대적 학제는 전통적 제도와 공존하면서 탄생한 것으로, 경사대학당의 예비과와 전문분과를 졸업한 자에게 과거 합격자의 자격이 주어졌던 것이 대표적 예이다.<sup>43)</sup> 이 외에도 사학관(仕學館)과 사범관(師範館)이 설치되었으며, 경사동문관을 통합하여 경사대학당 부설의 역서국(驛書局)으로 전환하였다. 새로운 학제에서도 지리 수업은 중시되었는데, 대학예비과와 정과(正科)에 '외여지과정(外輿地科程)'이 개설되었고, 사범관에는 '세계의 대세', '중국과 외국 각 지역의 지도', '지문지질학', '지리 교수법' 등이, 역학국에서는 '중국지리'를 비롯하여, 각 대륙의 지리와 지문학 등의 과목이 설치되었다.

이어 1904년에는 계묘학제(癸卯學制)라 불리는 『奏定學堂章程』을 통해 일본의 학제를 참조하여 대학당을 모두 8과<sup>44)</sup>로 나누었고, 모든 학과 아래에는 오늘날 학과에 해당하는 '문과목(門科目)'을 설치하였는데, 그중에 문학과대학 아래에 설치된 '중외지리학문(中外地理學門)'이 지리학과에 해당한다. 『奏定大學堂章程』에서는 지리학 연구 방법에 관한 규정도 포함되어었는데, 예를

42) 전문학은 고등산학, 고등격치학, 고등정치학(법률학 포함), 농학, 광학, 공정학, 상학, 위생학(의학 포함), 고등지리학 등 10개였다. 湯志鈞, 陳祖恩 編, 2007, 『戊戌時期教育』, 上海: 上海教育出版社.

43) 경사대학당의 3년 과정의 대학예비과를 졸업한 사람들은 지방 단위의 과거 합격자에 해당하는 거인(舉人)의 자격이, 3년 또는 4년의 전문분과를 졸업한 자에게는 과거시험의 최종 합격자를 지칭하는 진사(進士)의 자격이 주어졌다. 양일모, 2008, 『엔푸: 중국의 근대성과 서양 사상』, 태학사.

44) 8개 대학은 경학과대학(經學科大學), 정치과대학(政治科大學), 문학과대학(文學科大學), 의과대학(醫科大學), 격치과대학(格致科大學), 농과대학(農科大學), 공과대학(工科大學), 상과대학(商科大學)이다.

들어 지리연구법의 내용에는 중국과 외국의 관계, 지리와 기후의 관계, 재정과 지리의 관계, 해륙교통과 지리의 관계, 역사와 지리의 관계, 식물과 지리의 관계, 문화와 지리의 관계, 군정(軍政)과 지리의 관계, 풍속과 지리의 관계, 공업과 지리의 관계 등 인간과 환경과 관련한 근대적 지리학의 내용을 거의 다 포괄하고 있다. 이 밖에도 『대학당장정』에서는 지리학 관련 수업규정도

〈표 2〉 『대학당장정』의 지리 관련 수업 및 시수 규정

유형	과목	1학년	2학년	3학년
主科	地理學研法	2	2	4
	中國今地理	5	4	3
	外國今地理	2	4	3
	政治地理	0	0	1
	商業地理	0	0	1
	交涉地理	0	1	1
	歷史地理	2	1	0
	海陸交通學	1	1	0
	植民學·植民史	0	1	0
	人種學·人類學	1	0	0
補助科	地質學	0	1	0
	地文學	0	1	0
	地圖學	0	1	1
	氣象學	0	0	1
	博物學	0	0	1
	海洋學	0	0	1
	外國語	6	6	6
隨時科程	中國方言	2	1	1
	政治總意			
	全國土地民物統計學			
	全國土力比較			
	各國商業史			
各國外交史				
交涉學				

출처: 郭雙林, 2000, 107~108쪽 수정 후 인용.

포함되었다. 물론 이러한 수업 계획이 당시 완전하게 실현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지만, 당시 지리학이 학술 제도의 초보적 형성과정을 파악하기에는 충분하다.

한편 청나라 말 선교사 설립 학교와 신식 학당이 증가하면서 교과서에 대한 요구도 증대하였다. 청나라 말 수업 교재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지리교과서는 1877년 중국익지회의 교과서로 알려져 있지만, 이 시기 만들어진 지리교과서 중 가장 영향력이 컸던 것은 1886년 에드킨스가 완성한 『西學略述』 중에 포함된 『地志啓蒙』과 『地理質學啓蒙』 두 권이다. 1880년 총세무사(總稅務司)가 된 하트(Robert Hart, 중국명 赫德)에 의해 해관(海關)의 번역으로 초빙된 에드킨스는 서양인들이 건립한 각종 교회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서적의 번역을 요청받고, 5년 만에 미국 맥밀란 대학의 교과서 중 10종을 번역하여 완성하였다. 이 책은 완성된 이후 중국 지식인들의 지대한 관심을 받았다.

중국인이 만든 최초의 지리학 교과서는 1901년 장상문(張相文)이 펴낸 『初等地理教科書』와 『中等本國地理教科書』로 이 책들은 중국 교과서의 효시로 여겨지며, 어떤 학자는 중국에서 ‘교과서(教科書)’라는 단어 또한 그가 처음 사용한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하였다.<sup>45)</sup> 이 외에도 그는 『蒙學中國地理教科書』와 『蒙學外國地理教科書』, 『中國初等地理教科書』 등도 만들었는데, 그의 책들은 주로 소학당이나 중등학교의 교재로 제작된 것이어서, 여행기나 지리관련 문답(問答)이 결합된 비교적 간단한 체제로 되어 있어 지식의 수준은 깊지 않았다. 그러나 이 책은 여러 차례 재판되어 이백여만 부가 팔렸다고 알려질 정도로 당시 크게 유행하였다.<sup>46)</sup>

45) 張天麟, 1981, 「張相文對中國地理學發展的貢獻」, 『歷史地理』 創刊號, 204쪽; 郭雙林, 2000, 109쪽 재인용.

46) 장상문은 본래 과거에 급제한 전통적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청일전쟁 기간에 준빈서원(準濱書院)의 교편을 잡으면서 지리학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그는 당시 강남제조국번역국의 지리학 관련 번역서와 교회학당에서 사용하던 지리교재들을 통해 지리학 지식을 쌓아 갔고, 남양공학(南洋公學)에서 교사로 재임하는 동안에는 일본 국적의 동료 교

### 3) 지리학 전문가 집단의 형성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번역된 서양 지리학 저술은 약 208종에 달하며, 그 분야는 지리학총론에서, 지문학, 기후학, 문화·정치지리학, 지역지리학, 상업지리학, 교통·여행지리학, 군사지리학, 지도책·지도해설 등의 분야를 망라하였다.<sup>47)</sup> 그러나 이러한 자료들에 접근 가능했던 사람은 극히 소수의 사람들에 불과했다. 특히 과거제도가 폐지되기 이전까지 지식인들에게 이들 근대적 지리 지식은 그다지 매력적인 것이 아니었다. 1890년에 베이징에서 회시(會試)를 치른 후 귀향하는 길에 양계초가 상하이에서 “『瀛環志略』을 사서 읽고 난 후야야 오대주 각국이 있음을 알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는 매우 유명한 일화 중 하나이다.<sup>48)</sup> 즉 19세기 말에 이르기까지도 상당수 중국인들에게 세계와 관련한 지리적 지식은 충분히 전파되지 못했던 것이다. 따라서 19세기 『해국도지』와 『영환지략』 등 중국인에 의해 만들어진 일련의 세계지리 저서들은 세계지리 지식의 확산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임칙서(林則徐)는 1838년 휴 머리(Hugh Murray)가 펴낸 세계지리 백과사전인 *The Encyclopaedia of Geography*를 편역하여 『四洲志』를 펴냈고, 위원(魏源)은 이 책을 기본으로 『해국도지』를 만들었다.<sup>49)</sup> 한편 1850년 서계여(徐繼畬)는 『海國圖志』에 포함된 서양 지리학 지식과 서양 선교사와 외교관들과의 접촉을 통해 “당대 중국 최고 수준의 세계지리 저작의 대표작”이라고

사에게 일본어를 배워, 일본에서 번역된 지리학 서적들을 통해 ‘환경결정론’을 비롯한 각종 지리학 지식들을 쌓았다. 何斌·李傳永, 2003, 「革新中國地理學的先驅—張相文」, 『科技人物』 第5期, 93쪽.

47) 鄒振環, 2000, 351쪽.

48) 梁啟超, 1953, 「三十自述」, 『戊戌變法』(4), 神州國光社, 49.

49) 『해국도지』는 『사주지』 이외에도, 이전의 알레니의 『지방외기』와 페르비스트의 『坤輿圖說』과 모리스의 『外國史略』, 웨이(Richard Quanterman Way, 중국명 裨理哲)의 『地球圖說』, 마르케스의 『신석지리비고』, 귀츨라프(K. F. A. Gutzlaff, 중국명 郭實獵)의 『萬國地理全圖集』, 브리지먼(Elijah Coleman Bridgman, 중국명 裨治文)의 『미리가국합성국지략』 등 서양 선교사들의 다양한 지리번역서를 참조하였다.

불린 『영환지략』을 펴냈다.<sup>50)</sup> 1860년대 양무운동이 발생하면서 두 책은 소수의 관료들뿐 아니라 중국 지식계 전체에 파급되기 시작하였는데, 19세기 말의 반세기 동안 만들어진 『해국도지』의 판본이 15종, 『영환지략』의 판본이 18종에 달할 정도였다.<sup>51)</sup> 양계초, 왕도(王韜), 강유위(康有爲), 곽송도(郭嵩燾) 등 중국 근대의 선구적 지식인들은 대부분 이 책들을 통해서 세계 각국에 관한 지리적 지식을 획득하였고 서양과 서학을 알기 위한 욕구를 갖게 된다. 특히 『해국도지』 60권본과 『영환지략』은 1850년대 잇달아 일본에 전래되어 수많은 번역본·혼해본·교정본 등이 출판되기도 했을 정도로 한국과 일본에도 영향을 미쳤다.<sup>52)</sup>

지식적 측면에서만뿐 아니라 지역의 기술 체제에 있어서도 이 두 책은 전통적 지리학에서 근대적 지리학으로의 변화를 보여 준다. 중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세계지리 관련 저작들은 주로 ‘동남양(東南洋)’, ‘서남양(西南洋)’, ‘소서양(小西洋)’, ‘대서양(大西洋)’ 등 바다를 중심으로 세계를 구분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영환지략』의 경우에는 대륙과 해양을 구별하여 권1에서 사대주(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와 오대해(대양, 대서양, 인도양, 북빙양, 남빙양)로 전 세계를 구분한다. 각국을 소개할 때에도 대륙의 개괄적인 모습을 먼저 서술하고 난 후에, 지리적 위치에 근거하여 대륙을 여러 지역으로 나누고 각 나라를 그 아래에 서술하였는데, 이는 근대적 지역지리학의 서술 방법과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위원과 서계여 등은 전문적 지리 지식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이 책들을 지리학 저술로 보는 것에 대한 비판이 존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중국에서 진정한 의미의 근대적 지리학자는 최초의 지리 협회<sup>53)</sup>를 창립한

추대균과 최초의 지리 잡지를 창간한 장상문 등이며, 이들의 주도하에 만들어진 전문적 학술기구의 창설과 학술잡지의 발간이야말로 중국이 전통적 지리학에서 근대적 지리학으로의 전환하는 상징적 사건으로 중요시되고 있다.<sup>54)</sup>

서양의 근대지리학의 발전과정에서도 각국의 지리협회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데, 1830년 영국에서 설립된 왕립지리협회(The Royal Geographical Society)는 윌리엄 4세의 후원 하에 설립되었고, 회원들은 대부분 아마추어 학자였지만 찰스 다윈과 같은 저명한 과학자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다. 왕립지리협회의 성공으로 1850년대가 되면 베를린 등 각지에서 지리학회가 설립되었고, 이들 학회는 유럽을 넘어 북미와 남미에도 만들어졌다.<sup>55)</sup>

중국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지리협회는 1896년 추대균이 창립한 ‘역인서문지도공회(譯印西文地圖公會)’로 이는 순수한 학술단체라기보다는, 서양어로 된 지도들을 전문적으로 번역·인쇄·제작하는 일종의 출판기구였다. 전통적 지도제작자 집안에서 태어난 추대균은 유서분(劉瑞芬)의 영국 출사길을 수행하면서 서양의 지도제작기술을 습득하게 되었다. 그는 유럽에서 귀국하면서 서구의 각종 지리서적과 지도책을 가져왔는데, 청말 각지에 각종 학회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던 사회적 배경과 맞물려 중국 최초로 전문적으로 지도를 연구·출판하는 민간 학술기구를 만들게 된 것이다. 일명 ‘지도공회’라고 불리는 이 기구의 주요 활동은 서양어로 된 지도를 번역·인쇄하는 것이었지만, 그 외에도 국내외 지도관련 학자들의 네트워크의 기반이 되었다.<sup>56)</sup>

음 사용되었다. 중공 성립 이후에 중국지리학회는 중국지학회와 통합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50) 潘振平, 1993, 『瀛環誌略』研究, 任復興 主編, 『徐繼畬與東西方文化交流』, 中國社會科學院出版社; 鄒振環, 2000, 314쪽 재인용.

51) 두 책의 판본 목록은 鄒振環, 2000, 346쪽 각주 26, 27 참조.

52) 王家儉, 1966, 『海國圖志』對於日本的影響, 『大陸雜誌』第32卷 第8期; 鄒振環, 2000, 317쪽 재인용.

53) 중국에서 ‘지리학회’라는 명칭은 1934년 난징(南京)에서 창설된 ‘中國地理學會’에서 처

54) 周艷紅, 2002, 『鄧代鈞與中國地理學的發展』, 『中山大學研究生學刊』第23卷 第1期; 何斌·李傳永, 2003, 『革新中國地理學的先驅—張相文』, 『科技人物』第5期; 許然, 1998, 『鄧代鈞, 張相文, 竺可禎與我國的近代地理學』, 『地域研究與開發』第17卷.

55) Heffernan, M.(2003), “Histories of geography,” in Sarah L. Holloway eds., *Key Concepts in Geography*, London, Thousand Oaks, New Delhi: Sage Publications, pp.3~22.

56) 鄒振環, 2000, 322~330쪽.

뒤이어 장상문의 주도로 만들어진 ‘중국지학회(中國地學會)’와 『地學雜誌』는 중국 근대 지리학의 기념비적 사건이다. 1909년 장상문은 전국의 지리교사들과 기타 지학 및 지리학에 관심이 있는 지식인들을 연계하여 톈진(天津)에서 중국지리학회의 전신인 중국지학회를 창립하였다. 추대균의 지도공회와 달리 중국지학회는 순수한 학술단체로 1910년 『지학잡지』의 창간호 학회장정에는 “본국의 지학과 그와 더불어 세계 각국을 연구하는 것이 주목적이며, 그것을 넘어서는 범위의 일은 관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 중국지학회에서는 학술연구와 정기적인 회의의 개최, 여행보고, 강연회 등과 함께 학술잡지의 출판이 이루어졌는데, 특히 1910년 창간호 『지학잡지』는 중국 최초의 지리 전문 학술지라는 점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지학잡지』는 1937년 정간될 때까지 총 28년간 발간되었고, 각종 지리학 관련 연구들이 발표되었다. 지학잡지는 자연지리보다 인문지리학적 연구가 주로 중시되어, 1,600편의 글 중에 자연지리학 관련 글이 100여 편인 데 반하여, 경제지리학 분야의 글이 총 430편, 정치지리학 분야의 글이 100여 편에 달하며, 인구지리학 관련 내용도 30편에 달하였다. 그 외에도 ‘지리지’라는 이름으로 지역지리 연구도 상당수 발표되었는데, 그중 상당수가 중국 국내를 다룬 것이었으며 답사 및 탐험보고서, 각종 여행기 등도 수록되어 중국에서 지리학 지식이 보편화되는 데 크게 기여했다.<sup>57)</sup>

이처럼 20세기 초에 이르면 중국인 스스로가 설립한 근대적 지리학 학술단체와 전문 잡지를 통해, 중국인들에 의해 근대적 의미의 지리 조사와 지리학 연구들이 발표되기 시작하였다. 물론 아직까지 그 과학적 방법의 정밀성이나 이론적 전문화가 충분하게 갖추어지지 않았지만, 이 무렵 중국에서 근대적 지리학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4. 결론

중국은 역사적으로 세계 어느 곳과 비교해도 풍부한 지리적 전통을 가지고 있었지만, 근대적 지리학 학지의 형성은 청일전쟁과 아편전쟁 등 19세기 중반 이후의 역사적 경험을 겪기 전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지만 중국에서 근대적 지리학의 형성과정은 단순히 서양의 분과학 개념의 ‘전파’ 혹은 ‘수입’으로 정의하기에는 어려운 복잡한 과정이었다. 16세기부터 서구에서 유입된 지리학 지식들은 중국 내부의 학문적 경향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중국의 지식인들에게 쉽사리 받아들여지지 못했는데 이는 전통적 지리적 관념의 관성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반증하는 것이다.

그러나 19세기 중엽 이후부터 20세기 초에 이르면 중국인들은 스스로 근대적 지리학의 학지를 형성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변화는 지리학의 개념 정의와 하위 분야에 대한 규정, 대학 강좌와 교과서의 제작 등 근대적 지리학 제도의 형성, 학회와 잡지 등을 통해 지리학 전문가 집단의 형성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아직까지 과학적 정밀성이나 이론적 전문화는 충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시 중국인들은 전통적 지리 관념과 외부에서 유입된 지식 체계에 대한 정보들을 종합하여, 지리학이란 무엇을 다루는 학문인지 스스로 정의하기 시작했다는 측면에서 이 시기에 중국에서 근대적 지리학은 이미 시작되었다. 한편 새롭게 구축된 근대적 지리학을 토대로 중국인들은 전통적 천하관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계 인식을 갖추게 되었고, 이러한 인식은 궁극적으로 서양과 상호소통 가능성의 토대가 되었다는 점에서, 근대 중국에서 지리학 학지의 형성에 대한 이해의 또 다른 중요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57) 何斌·李傳永, 2003, 94쪽.

## ■ 참고문헌

### 1. 기본 자료

- Joseph Edkins, 『西學略述·地志啓蒙』(1886).  
 梁啓超, 『讀西學書法』(1897), 夏曉虹 輯, 『冰飲領室合集·集外文』, 北京大學出版社, 2005.  
 王庸, 『中國地理學史』(1938), 上海書店影印本, 1984.  
 魏徵 等 撰, 『隨書』, 北京: 中華書局, 1987.  
 中國地理學會 홈페이지(<http://www.gsc.org.cn>)  
 總理衙門, 「籌議京師大學堂章程」, 『戊戌變法(4)』.  
 鄒代鈞, 『京師大學堂中國地理講義初編』(연도미상).  
 「史記·秦始皇本紀」, 『二十五史(第1冊)』, 上海古籍出版社, 1986.  
 梁啓超, 「三十自述」(1953), 『戊戌變法(4)』, 神州國光社.

### 2. 단행본

- 권정화, 2005, 『지리교육의 이해를 위한 지리사상사 강의노트』, 한울.  
 데이비드 먼젤로, 2009, 『진기한 나라, 중국: 예수회 적응주의와 중국학의 기원』, 장동진·정인재·이향만 옮김, 나남(Mungello, D. E., 1989, *Curious Land: Jesuit Accommodation and the Origins of Sinology*,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양일모, 2008, 『옌푸: 중국의 근대성과 서양 사상』, 태학사.  
 이희연, 1991, 『지리학사』, 법문사.  
 조셉 니담, 1985, 『중국의 과학과 문명: 수학, 하늘과 땅의 과학, 물리학』, 이면우 옮김, 까치(Needam, J., 1978, *The Shorter Science and Civilisation in China*, Cambridge,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존 헨더슨, 2004, 『중국의 우주론과 청대의 과학혁명』, 문중양 옮김, 소명출판 (Henderson, J. B., 1984, *The Development and Decline of Chinese Cosmology*, NY: Columbia University Press).

페데리코 마시니, 2005, 『근대 중국의 언어와 역사』, 이정재 옮김, 소명출판 (Masini, F., 1993, *The Formation of Modern Chinese Lexicon and Its Evolution toward a Language: the Period from 1840 to 1898*, Berkeley: Journal of Chinese Linguistics Monography).

- Wallerstein I., 1999, 『學科·知識·權力』, 劉健芝 等 編譯, 香港: 三聯書店.  
 江曉原·鈕衛星, 2000, 『天文西學東漸集』, 上海: 上海書店出版社.  
 顧長聲, 1985, 『從馬禮遜到司徒雷登』,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郭雙林, 2000, 『西潮激蕩下的晚清地理學』,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郭延禮, 2000, 『近代西學與中國文學』, 南昌: 百花洲文藝出版社.  
 關維民, 1998, 「中國高校建立地理學系的第一個方案—京師大學堂文學科大學中外地理學間的課程設置」, 『中國科技史料』第19卷 第4期.  
 譚其驤 主編, 1998, 『清人文集地理類匯編(第1冊)』, 州: 浙江人民出版社.  
 辛德勇, 2007, 「準望釋義—兼談裴秀制圖諸體之間的關係以及所謂沈括制圖六體問題」, 『九洲(第4輯)』, 上海: 商務印書館.  
 熊月之, 1984, 『西學東漸與清末思想』,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張豈之 主編, 1996, 『中國近代史學學術史』, 北京: 中國社會科學院出版社.  
 張靜廬 輯注, 1957, 『中國近代出版史料初編』, 北京: 中華書局.  
 田滋, 2005, 『中國數學的西化驛程』, 濟南: 山東教育出版社.  
 周振鶴, 1996, 『正眼看世界的第一人—隨無涯之旅』, 三聯書店.  
 中國科學院自然科學史研究所 地學史組 主編, 1984, 『中國古代地理學史』, 北京: 科學出版社.  
 許衛平, 2002, 『中國近代方志學』, 上海: 江蘇古籍出版社.  
 『中國大百科全書·地理學』, 1986, 北京, 上海: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Martin J. G. and James, E. W., 1993, *All Possible Worlds: A History of Geographical Ideas*, NY: John Wiley and Sons.
- ### 3. 논문
- 양보경, 1987, 『조선시대 읍지의 성격과 지리적 인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명희, 2009, 「중국의 영향과 우리나라의 고지도」, 『한국 지도학 발달사』, 국토지리정보원, 291~301쪽.
- 임성모 · 박상현 · 조규현 · 유병관, 2011, 「제국 일본의 문화권력과 학지—연구사적 고찰」, 『한림일본학』 18권, 5~44쪽.
- 임종태, 2004, 「서구 지리학에 대한 동아시아 세계지리 전통의 반응: 17-18세기 중국과 조선의 경우」, 『한국과학사학회지』 26권 2호, 315~344쪽.
- 장의식, 2007, 「청말 개혁의 축소판: 무술변법 운동기의 경사대학당」, 『대구사학』 88집, 12~157쪽.
- 董作賓, 1943, 「殷文丁時卜辭中一瞬間之氣象記錄」, 『氣象學報』 第17卷 1-4合期.
- 潘振平, 1993, 「『瀛環誌略』研究」, 任復興 主編, 『徐繼畲與東西方文化交流』, 北京: 中國社會科學院出版社.
- 艾素珍, 1998, 「清代出版的地質學譯著及特點」, 『中國科技史料』 第19卷 第1期.
- 王家儉, 1966, 「『海國圖志』對於日本的影響」, 『大陸雜誌』 第32卷 第8期.
- 張天麟, 1981, 「張相文對中國地理學發展的貢獻」, 『歷史地理』 創刊號.
- 周艷紅, 2002, 「鄒代鈞與中國地理學的發展」, 『中山大學研究生學刊』 第23卷 第1期.
- 鄒振環, 2000, 『晚清西方地理學在中國: 以1815至1911年西方地理學譯著的傳播與影響爲中心』,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 湯志鈞 · 陳祖恩 編, 2007, 『戊戌時期教育』, 上海: 上海教育出版社.
- 何斌 · 李傳永, 2003, 「革新中國地理學的先驅—張相文」, 『科技人物』 第5期.
- 許然, 1998, 「鄒代鈞, 張相文, 竺可禎與我國的近代地理學」, 『地域研究與開發』 第17卷.
- Heffernan, M.(2003), "Histories of geography," in Sarah L. Holloway eds., *Key Concepts in Geography*, London, Thousand Oaks, New Delhi: Sage Publications, pp. 3~22.
- Hsieh, C.(1958), "Hsia-Ke Hsu-pioneer of modern geography in China,"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48(1), 73~82.
- Takeuchi, K.(1984), "Japan," in Johnston, R. J. and Claval, P. eds., *Geography since the Second World War*, Rowman & Littlefield, pp. 235~263.

## Abstract

# The Formation of Modern Geography in China

Jieun Han(HK Research Professor,  
Institute for Urban Humanities, University of Seoul)

■ Key Word : Modern China, Geography, academic knowledge

This paper investigates the formation of modern geography in China. It took a long and hard time to form of academic knowledge about geography in China. Chinese were not willing to discard their geographical tradition, and to reorganize their knowledge system. But from late 19th century to early 20th century modern geography was in embryo. Since then geography was institutionalized one of the modern sciences, and it was crystallized by some groups of professional geographers. Now geography is still unfixed and continually constructed, it needs to be identified object of geographical study and its academic worth.